

# 교육공무직 정신건강 돕는다

### 전북자치도교육청,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사업 지속... 개인·집단상담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공무직원 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교육공무직원 상담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2021년 시행 이후 매년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담·치료 지원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

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 72.4%, '만족' 27.6%로 나타나 교육공무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운영된다.

개인상담은 상담·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직원이 직접 상담(치료) 기관에 신청한 뒤 방문하면 된다. 집단상담은 구성원 간 갈등조정이 필요한 그룹으로, 본청 노사협력과에 공문으로 신청

하면 상담기관을 연계해 준다.

상담횟수는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70만원)·집단상담은 연간 4회(80만원)까지 지원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이면 누구나 익명성을 보장받고 상담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6일 학생 홍보대사 '전율' 수료 및 임명식을 연 가운데, 양오봉 총장과 신입 학생 홍보대사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청춘의 열정으로 대학의 진면목 보여주겠다”

### 전북대, 학생 홍보대사 '전율' 20명 임명 행사 지원·입시 홍보·캠퍼스 투어 등 진행

전북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전율'이 임명장을 받고 1년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김주승 학생(행정학과)을 비롯한 20명의 신입 학생 홍보대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전북대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 총장은 지난 1년 임기를 수행한 이은호(지구환경공학과) 학생 등 23기 학생 홍보대사들에게도 수료증을 수여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신입 학생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대학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설명회와 각종 행사 지원, 입시 홍보,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한다.

특히 시대 흐름에 맞는 대학 홍보를

위해 카드뉴스와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운영한다.

양오봉 총장은 “구술이 서 말이라도 췌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훌륭한 성과도 알리지 않으면 빛이 나기 어렵다”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플래그십 대학을 널리 알리는 데 우리 학생 홍보대사들이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4기 학생홍보대사 김주승 대표는 “청춘의 열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북대학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입학처장에 조현철 교수 임명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입학처장에 조현철(체육학과·사진)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3월 1일자로 입학처장에 임명된 조현철 교수는 우석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우석대학교에는 2008년 부임해 체육과학대학장과 학과장, 주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체육부장을 겸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한국특수체육학회 부회장과 전북스카우트연맹 부연맹장을 맡아 지역 체육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조현철 입학처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유출 등 지역과 대학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수험생을 위해 간소화 된 입학전형 개발과 함께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대학에 입학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맞춤형교육 및 국내현장학습.

## 우석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A등급'

### 전문인력 배출, 지·산·학·연 협력 선도모델 인정받아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식품석사)이 최근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석대학교 대학원 식품생명공학과는 현재까지 5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과 연구기관에 진출시켰다.

올해도 이 사업에 재지정된 우석대학교는 15명의 식품생명공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 맞춤형 커리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사업에 재지정되면서 차세대 고부가가치 기능성식품산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산·학·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총괄책임자인 오석홍 진전캠퍼스 부총장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과 다양한 특성화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좋은 마트 탄소중립 실천과 연계된 녹색생명 식품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지·산·학·연과의 협력 선도모델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인권문제를 생각하다... 미국 흑인 문학 걸작, 번역 출간

### 전북대 박재영 교수, 폴린 합킨스 '생의 나락에서 희망을 줘다' 출간

전북대학교 박재영 교수(영어교육과)가 미국 흑인 문학의 걸작으로 인정받는 '생의 나락에서 희망을 줘다'를 번역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영국 작가 앤 래드클리프의 1790년 소설인 '시칠리아 로맨스'를 번역 출간한 이후 1년 만에 두 권의 역사(譯書)를 펴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박 교수는 유독 인종과 여성 차별 문제 등을 다룬 작품에 주목한다. 이 소설 역시 1900년대 출간된 미국 흑인 문학의 고전으로, 혼혈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미국 남북 전쟁 이후 흑인들의 비극적 삶과 경험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폴린 합킨스의 소설이 국내에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작품의 저자인 폴린 합킨스는



박재영 전북대 교수

흑인 역사, 인종 차별, 경제 정의, 여성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부상했다. 1890년대에는 주로 속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여성 운동과 기타 시민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1898년에는 뉴잉글랜드 여성 클럽 연맹 연례 대회에서 여성 시대 클럽을 대표해 연설했고, 1901년에는 보스턴 문학 및 역사 협회의 창립 회원이

되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는 '흑인의 목소리'에서 일하며 그 잡지에 여러 비평 글을 실었다.

이 작품은 인종 분리와 차별에 직면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투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미국의 인종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한국 사회의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흑인 여성의 불평등과 불공정 경험을 조명하고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역설하고 있어 한국 독자들에게 한국의 여성 인권 문제와도 연관하여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한다.

박재영 교수는 “이번 번역서를 통해 국내 독자들이 미국 흑인 문화와 역사, 문화를 접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경험함으로써 폭넓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영 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학부와 석·박사 통합과정을 공부하고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전북대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은성 기자

## 청렴문화 확산... 전북자치도교육청 청렴송 '눈길'

### 1분 분량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 열어가자는 내용 담아

### 영상에 감사관실·정책기획과 등 직원들 직접 출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송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과 공정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것으로,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노래를 통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작했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1분 분량의 청렴송은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교육공공체 모두가 담당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해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렴송 영상에 감사관실, 유초 특수교육과, 정책기획과, 대변인실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청렴문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청렴송은 전북교육청 전화 통화대기음을 비롯해 전북교육 캠페인, 청렴송 부르기 릴레이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성하 대변인은 “청렴도 향상은 올해 전북교육청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작한 '청렴송' 영상 일부분.

면서 “쉽고 재미있는 청렴송을 흥얼거리면서 매 순간 청렴의지를 다지고, 청렴이 일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다문화 학생 한국어 학습 동영상 개발

### 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습 동영상 자료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래교육연구원이 개발한 '교실 한국어 기초'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단어와 문장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학교에서 인사하기와 소개하기', '학용품 종류', '교실의 물건', '교과서 소개' 등 총 10차시로 구성해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교실 한국어 기초'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에서 방과후 시간, 가정에서 학부모와 함께 학습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습득은 물론, 학교생활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동영상 학습자료는 미래교육연구원

jeonbuk.kr/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미래교육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교실 한국어 기초 배우기)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다.

자료 개발에 참여한 전주금평초등학교 김주우 교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입학하거나 전학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한국어를 익히는데 더디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 학습자료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익 원장은 “이번 학습자료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국어를 습득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기대된다”며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국립군산대 '새만금 바다연구 새로운 10년' 추진 심포지엄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환경연구센터(센터장 권봉오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는 '새만금 바다연구 새로운 10년' 추진을 위한 새만금 바다연구 10년 기념 심포지엄을 최근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노텍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이장호 총장은 환영사에서 새만금 환경 보호, 생태계 관리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립군산대학교와 새만금환경연구센터가 새만금 관련 연구와 교육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전했다.

기조 강연자로 참석한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 바다 연구 10년 돌아보기, 그리고...'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 10년간 '새만금 주변해양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새만금 바다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종성 안원대학교 교수는 '새만금 바다 진단하기'라는 제목으로 새만금 내의 해역에서의 조간대 퇴적 환경 변화, 조간대 생태계 기능, 유영/저서 생물, 펄프 등 새만금 해역의 환경과 생태계 기능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용식 (주)지오시스템리서치 부사장은 '새만금 바다 예측하기'라는 제목으로 앞서 발표된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새만금 유동, 퇴적, 파랑 등을 포함한 모델을 구축했고, 이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80% 이상임을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권봉오 센터장은 '미래 새만금 바다 연구 10년'이라는 제목으로 새만금 개발의 현황과 주요 해양환경 이슈로 이차전지 산업폐수, 해상태양광, 새만금 방조제 주변 해역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권산=김광근 기자

## 원광대, 2024 통일교육 선도대학 선정

### 4년간 매년 1억8000만원 국고 받아 통일교육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가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선정돼 향후 4년간 매년 1억 8,0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통일교육 선도대학은 통일교육을 체계적, 전면적, 창의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확산, 모범적 시행 등을 통해 통일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생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시대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원광대는 '인문융합-미래-국제'라는 비전 아래 통

일을 주제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학제 간 융복합 통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한반도발 평화 지평을 확장해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원광대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학발전 추진전략 중 하나로 '통일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확산, 모범적 시행 등을 통해 통일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생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시대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원광대는 '인문융합-미래-국제'라는 비전 아래 통